

문화 단신

진주박물관 '고성전'... 진관사 태극기 전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 흔적 보여줘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진화수)은 8월 31일까지 2014년도 지역특별전 '고성'을 개최한다. 지질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경남 고성 지역의 다양한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진관사 태극기가 전시돼 눈길을 끈다.



백초월스님 활동을 말해주는 '진관사 태극기'

진주박물관은 "개항 이후 고성도 다른 지역처럼 급격한 행정 개편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다.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각 분야에 뛰어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백초월 스님, 김열규, 추송운 같은 이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진관사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나라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이 전시는 동외동유적 출토 '새무늬 청동기'를 비롯하여 1,700여 점의 각종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055)740-0664 정혜숙 기자

동국대, 2014 썸머 뮤직플레이 캠프

30일부터 4박 5일간... 김형석, 박칼린 공동 진행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4 썸머 뮤직플레이 캠프를 트라이블, K-NOTE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는 7월 30일~8월 3일 4박 5일간 동국대(서울)와 트라이블(인천)에서 진행됐다.



뮤직플레이 캠프 합창 연습 장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최고 작곡가,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불리는 김형석과 박칼린이 강의를 맡았다. 실용음악과 뮤지컬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박칼린은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션과 아티스트들과의 수업을 통해 뮤지션이 되고 싶은 학생들의 꿈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며 취지를 전했다.

실용음악 캠프(보컬·작곡)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김형석을 필두로 작곡가 돈스파이크, 가수 김조한, 재즈피아니스트 정원영, 기타리스트 한상원, 가수 신연아(빅마마), 작곡가 이현승, 재즈아티스트 대니정 등이 참여했으며, 뮤지컬 캠프는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뮤지컬 배우 최재림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됐다.

정혜숙 기자

탑골미술관 '이상(理想)한 실험실' 개최

탑골미술관(관장 최희우)은 8월 10일~14일 5일간 '이상(理想)한 실험실'을 개최한다.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을 디자인하고 미적 감각을 가미해 변모시키는 작업이다. 우리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비록 삶은 가난했으나 손끝으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지혜와 솜씨를 가지셨다. 그 때의 추억이 예술로 승화되는 과정"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 옷을 재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이상한 실험실'은 예술과 복지의 융합,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지향한다. 탑골미술관은 "현 옷으로 풀판지 시계, 스탠드 액자, 디퓨저병 등

정혜숙 기자

마음의 눈으로 빚어낸 구도의 노래

첫앨범 '세상에 물들지 않는...' 발매한 명성음악가 홍관수 씨

시각장애인인 홍관수(42) 씨가 1집 앨범을 발표했다. 인연의 소리, 님 찾아, 나의 길 등 총 8곡의 음악이 실린 이번 음반은 그가 지난 7년간 작곡하고 공연해왔던 곡들을 모은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시력을 잃고 10년간 절에서 살며 사미계를 받았을 만큼 불교 속에서 자랐기에 그의 노래에는 불교적 색채가 진하게 담겨 있다.

당했다. 홍 씨는 "장애인으로의 삶이 고단했고 고민도 많았던 시절 <숫타니파타>를 읽으며 마음을 위로받았다. 이 노래는 근본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자는 내용을 노래에 실었다"고 설명한다.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거리문화예술제 등에서 공연을 하다가 지난



시각장애인인 홍관수 씨가 1집 앨범을 발표하고 9월부터 제주지역 사찰 순회공연을 갖는다.

시각장애인 아픔 불교로 극복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 찾는 과정

음악에 담으며 진리의 길 노래

9월부터 제작 사찰 순회 공연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앨범 표지

2007년 명상곡 '인연의 소리'를 시작으로 불법이 삶에 응축된 내용의 가사를 노래로 만들어 왔다. 홍 씨는 자신의 음악 활동은 '참나'를 찾아가는 구도의 과정과 닮았다고 말한다. "음악은 '참나'를 찾는 한 방

편일 뿐이죠. '공 심은데 공 나고 팔 심은데 팔 난다'는 인연법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가수로 포수행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고열로 시력이 점차 나빠지기 시작해 고학년 때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시력을 잃으면서 건강조차 나빠진 그는 어머니를 따라 제주 한림읍 황룡사에서 요양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비록 세상만사를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마음의 눈으로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된다. 스님과 매일같이 예불을 올리며 경전을 독송하는 등 천수경 정도는 자연스럽게 읊을 정도가 됐을 무렵 사미계까지 수지했다. 경전 삼매에 빠질 때는 3~4분 숨을 쉬지 않고 독경했을 정도였는데 이는 지금 가수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홍 씨는 "장애인이려면 누구나 자살을 한번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절에 있을 때 저를 잘 챙겨주셨던 한 보살님께서 늘 "지금쯤 비록 힘 들겠지만 미래를 보려면 현재를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에 언젠가는 세상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그는 이렇게 10년 동안 사찰에서 살며 삶의 좌표를 정했고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음성공양으로 대중의 지친 삶을 위로해 주고 있다.

첫 앨범을 발매한 그는 9월부터 제주의 사당사, 관음정사, 한마음선원, 우리절 등에서 공연을 펼치며 불음의 향기를 전파할 예정이다. 010-5697-1839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무량수불, 극락에서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한미산 흥국사 괘불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10월 26일까지 서화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테마전 '무량수불, 극락에서 만나다·한미산 흥국사 괘불'을 개최한다.

제와 황태자 내외, 아들 영친왕과 자신의 안생을 위해 이 불화를 경기도 고양군 흥국사에 봉안했으며, 극락에서 무량수불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한미산 '흥국사 괘불'은 펼쳤을 때 높이가 6m가 넘는 크기의 불화로, 큰 화면 안에는 극락세계의 부처님, 무량수불(無量壽佛)과 관음·세지보살, 가섭·아난존자, 그리고 문수·보현보살의 일곱 존상을 그리고 있다. 무량수불은 손은 길게 내밀어 극락에 왕생할 자를 맞이하고 있고, 주변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오색구름을 만들어 낸다.

계비인 순비 엄씨 발원으로 제작

10월 26일까지 불교회화실서

나이가 그녀는 왕가의 안병과 아들 영친왕의 평안을 위해 30년에 달하는 만일의 기간 동안 무량수불, 곧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염불하는 만일염불회(萬日念佛會)를 흥국사에서 열었다. 순비의 정을 받고 당시 건봉사에서 능엄경과 화엄경을 통달했다는 해

송 스님이 초청되어 왔고 매일 1만 번씩 '나무 아미타불'을 합송하는 만일기도회가 흥국사에서 열렸다. 당시의 역사와 정치적 격변기였던 구한말이었기에 사회적 불안함과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서방 극락세계의 교주, 무량수불을 염불하면서 불교의 이상향인 극락세계를 꿈꾸었다.

괘불의 제작은 근대의 대표적인 불화승 경선당 응석 스님이 맡았다. 스님은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70여 점의 불화를 그렸으며 왕실발원 불화를 여러 차례 제작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화사였다. 음영법 등 서양화의 요소를 가미하여 불화조성을 한 몇몇 화승과는 달리 새로운 요소를 지양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계승하며 그의 화업을 쌓았다. (02)2077-9493



정혜숙 기자

계비인 순비 발원으로 제작된 흥국사 괘불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 사용 불교달력 정직한가격!!

小 25.8cm x 26.5cm 12절
2백부 이상 @ 1,000원
3천부 이상 @ 800원

大 30.5cm x 31cm 국6절
2백부 이상 @ 1,200원
3천부 이상 @ 1,000원

호수	품명	규격/정가	임시할인가	호수	품명	규격/정가	임시할인가
1호	마하반야바라밀다경	6절 (6종) 1,900원	1,200원 (200부 이상)	20호	맑은 향기	미니 (6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2호	산사로 가는 길		* 100부 주문시 1,400원 * 2000부 주문시 1,100원 * 3000부 주문시 1,000원	21호	우리말 반야심경		
3호	연향이 머무는 곳			22호	연꽃향기		
4호	천진미소			23호	자비의 향기		
5호	행복바라밀			24호	천진불		
6호	향기로운 말			25호	행복동자		
7호	가람의 향기	12절 (13종) 1,600원		1,00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1,200원 * 2000부 주문시 900원 * 3000부 주문시 800원	26호	나를 다스리는 말	수첩 (6종) 800원
8호	관음도		27호		미소동자		
9호	기달마도		28호		아름다운 풍경		
10호	찬년기와 동자		29호		천진동자		
11호	마음이 머무는 곳		30호		청정		
12호	물소리바람소리		31호		마음의 소리		
13호	반야동자		차갈이 (4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600원		
14호	반야심경					32호	마음이 핀 연꽃[비닐]
15호	부모은중경					33호	마음이 핀 연꽃[홀더]
16호	부처님사랑합니다					34호	동자 꽃[비닐]
17호	선의 세계		35호		동자 꽃[홀더]	2,400원 1,600원(200부 이상)	
18호	세계의 명찰		36호		선		
19호	연꽃이 있는 풍경	37호	행복한 하루				
20호	홀로있는 시간						

동진기획·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드류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0515-8888-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